

미 증시, 고용보고서 소화 후 되돌림 유입되며 상승 전환

서상영 sangyoung.seo@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고용보고서 소화 후 되돌림 유입되며 상승 전환

• 미 증시는 비농업 고용자수 급증 여파로 달러화가 강세를 국제 금리가 급등하자 하락 출발.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며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하고 국제 금리가 상승폭을 축소하자 반등에 성공. 특히 비록 견고한 고용시장에도 불구하고 되돌림이 강하게 유입된 점이 금융시장 변화를 촉발. 더불어 이번 비농업 고용자수가 파업과 파트타임 증가 등에 기인한 일부 착시현상이 있었다는 점도 되돌림 요인. 한편, AI 관련 반도체 등 기술주의 강세가 뚜렷했으나, 소비 관련 종목군의 부진 등 차별화도 특징(다우 +0.87%, 나스닥 +1.60%, S&P500 +1.18%, 러셀2000 +0.81%)

특징 종목: 반도체, 대형 기술주 강세 Vs. 식품 관련주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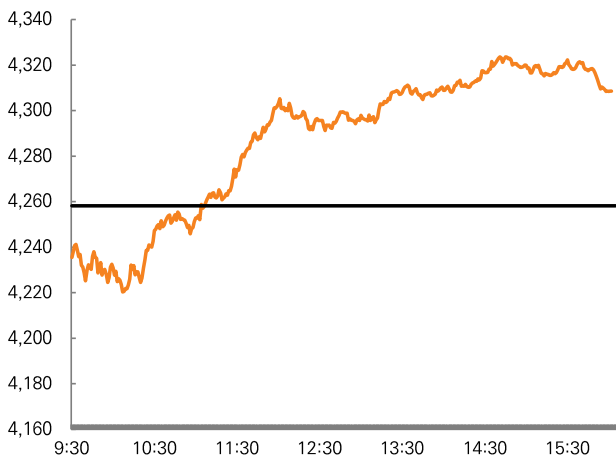
• '위대한'이라는 뜻의 매그니피센트 7 종목군은 상반기 급등 이후 최근 국제 금리 상승 등에 반응을 보이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조정을 보임. 그렇지만, 얼마전 골드만삭스가 관련 종목군에 대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를 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보고서 발표 후 상승 전환하는 등 변동성을 키움. 오늘도 관련 종목인 엔비디아(+2.40%), 메타(+3.49%), 알파벳(+2.02%), MS(+2.47%), 애플(+1.48%), 아마존(+1.59%)이 강세를 보였고 테슬라(+0.18%)는 모델 3등의 가격 인하 소식에 한 때 3.61% 하락했으나, 낙폭을 축소하며 강보합으로 마감

• 월마트(-1.68%)은 비만 이슈가 결국 식품 판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에 하락. 코스트코(-2.10%) 등은 물론 맥도날드(-1.59%), 다든레스토랑(-2.96%), 몬델리즈(-2.63%), JM스머커(-1.32%) 등은 약세. 반면, 일라이릴리(+4.38%)는 급등.

한국 증시 전망: 아쉬운 휴장

• MSCI 한국 지수 ETF는 1.09%, MSCI 신흥 지수 ETF는 1.4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42.56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12% 상승. KOSPI는 휴장이나 개장했을 경우 1%대 상승 출발 예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08.73	+0.21	상해종합	3,110.48	휴장
KOSDAQ	816.39	+1.92	홍콩항생	17,485.98	+1.58
DOW	33,407.58	+0.87	베트남	1,128.54	+1.32
NASDAQ	13,431.34	+1.60	유로스톡스 50	4,144.43	+1.09
S&P 500	4,308.50	+1.18	영국	7,494.58	+0.58
캐나다	19,246.07	+0.57	독일	15,229.77	+1.06
일본	30,994.67	-0.26	프랑스	7,060.15	+0.88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변화 요인

① 고용보고서 해석 ② 금융시장 변화

미국 9월 비농업 고용자수는 33.6만 건을 기록해 7월 23.6만 건, 8월 22.7만 건을 크게 상회. 이는 지난 1월 47.2만 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그러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착시 현상이 존재. 특히 파업 관련 자동차 및 부품 업종이 2.6천 건 감소에서 8.9천 건 증가로 전환됐고 트럭 운송이 2.5만 건 감소에서 8.8천 건 증가로 전화. 영화 및 녹음 산업 관련은 1.9만 건 감소에서 6.6천 건 감소로 개선. 이는 각 업종별로 1~2만명 이상이 증가하는 효과를 줬음.

한편, 레저 및 접객업이 4.4만 건에서 9.6만 건으로 증가했는데 특히 파트타임 노동자들이 많은 음식 서비스 등이 1만 4천건에서 6만 1천 건으로 증가. 경영악화, 정규직 구직 불가능 등으로 인한 파트타임 노동자는 11.9만 건 감소해 고용이 견고함을 보였으나, 육아문제 등 비경제적인 이유로 파트타임 하는 노동자는 20.1만 건 증가한 점도 특징.

결국 비농업 고용자수 증가는 ①파업 이슈로 인한 착시 현상 ②파트타임 노동자의 증가 등에 기인한 점이 특징

이런 가운데 시간당 임금은 지난달 발표된 전월 대비 0.24% 증가에서 0.21% 증가로 둔화. 특히 IT 업종이 전월 대비 0.15% 하락했고, 금융업종도 0.83%에서 0.43%로 둔화. 레저 및 접객업은 변함이 없었음. 이렇듯 이번 고용보고서 결과 고용시장이 견고하지만, 일부 착시현상이 존재하기에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은 제한.

한편,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미국 주식시장 선물은 하락폭을 키웠고, 달러화가 강세를, 국채 금리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되돌림이 유입되며 주식시장은 상승 전환하고,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했으며 금리는 상승폭을 축소.

이러한 변화는 비록 고용이 견고하기는 하지만, 연준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물가지표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 실제 시장이 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12일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 클리블랜드 연은이 발표하는 Nowcasts에서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9% 상승하고, 전년 대비로는 3.69% 상승을 전망. 이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 전월 대비 0.6%, 전년 대비 3.7%보다 둔화 전망. 클리블랜드 연은은 10월 지표도 전월 대비 0.27%, 전년 대비 3.48%로 더욱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물가 하방 압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이를 감안 고용보고서 결과에도 그동안 하락폭이 컸던 주식시장과 강세가 지속되었던 달러화와 금리는 되돌림이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음.



반도체, 대형 기술주 강세 Vs. 식품 관련주 부진

‘위대한’이라는 뜻의 매그니피센트 7 종목군은 상반기 급등 이후 최근 국제 금리 상승 등에 반응을 보이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조정을 보임. 그렇지만, 얼마전 골드만삭스가 관련 종목군에 대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를 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보고서 발표 후 상승 전환하는 등 변동성을 키움. 오늘도 관련 종목인 엔비디아(+2.40%), 메타(+3.49%), 알파벳(+2.02%), MS(+2.47%), 애플(+1.48%), 아마존(+1.59%)이 강세를 보였고 테슬라(+0.18%)는 모델 3등의 가격 인하 소식에 한 때 3.61% 하락했으나, 낙폭을 축소하며 강보합으로 마감

고용보고서 소화 후 달러 약세 및 금리 상승폭이 축소되자 인튜이티브(+3.29%), 세일즈포스(+2.65%) 등 소프트웨어 업종은 물론 AMD(+4.21%), 브로드컴(+2.60%) 등 반도체 업종의 강세가 진행. 파이오니어(+10.45%)는 엑손모빌(-1.67%)이 600억 달러 규모의 인수할 것이라는 소식에 상승. 엑손모빌은 하락. 이 소식에 옥시덴탈(+3.33%), 코테라 에너지(+2.64%), 다이아몬드백 에너지(+4.21%) 등도 동반 상승. 포드(+0.84%)와 GM(+1.95%), 스텔란티스(+3.02%)는 전미 자동차 노조와의 협상 진전으로 인해 새로운 파업이 없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상승.

월마트(-1.68%)은 비만 이슈가 결국 식품 판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에 하락. 코스트코(-2.10%) 등은 물론 맥도날드(-1.59%), 다든레스토랑(-2.96%), 몬렐리즈(-2.63%), JM스머커(-1.32%) 등 필수 소비재 종목군은 약세를 보임. 반면, 일라이릴리(+4.38%)는 급등.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1.83	대형 가치주 ETF (IVE)	+1.07
클린테크 ETF (CTEC)	+1.20	중형 가치주 ETF (IWS)	+0.87
소매업체 ETF (XLY)	+0.70	소형 가치주 ETF (IWN)	+0.59
온라인소매 ETF (EBIZ)	+2.28	대형 성장주 ETF (VUG)	+1.69
미국 인프라 ETF (PAVE)	+1.44	중형 성장주 ETF (IWP)	+1.52
핀테크 ETF (FINX)	+1.93	소형 성장주 ETF (IWO)	+1.20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1.94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81
클라우드 ETF (CLOU)	+2.84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1.46
사이버보안 ETF (BUG)	+3.49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1.19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1.63	미국 국채 ETF (IEF)	-0.58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1.16	하이일드 ETF (JNK)	+0.18
바이오섹터 ETF (IBB)	+0.57	신흥국 채권 ETF (EMBD)	+0.06
로봇&AI ETF (BOTZ)	+1.23	물가연동채 ETF (TIP)	-0.36
반도체 ETF (SMH)	+2.16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30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1개월(%)
IT	2,991.10	+1.94	+2.94	-3.43
커뮤니케이션	228.99	+1.83	+3.05	+0.73
유틸리티	290.51	+1.37	-2.90	-6.84
산업재	852.50	+1.33	-0.59	-5.04
헬스케어	1,515.28	+1.01	+0.94	-0.89
소재	490.89	+0.96	-0.74	-4.66
금융	549.36	+0.82	-0.51	-3.42
경기소비재	1,260.72	+0.70	-0.26	-4.74
에너지	656.79	+0.41	-5.39	-5.60
부동산	210.54	+0.34	-1.53	-8.09
필수소비재	704.51	-0.48	-3.14	-6.05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한국
주식시장 전망

휴장이나 개장했을 경우 1%대 상승

MSCI 한국 지수 ETF는 1.09%, MSCI 신흥 지수 ETF는 1.4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342.56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1.12% 상승. KOSPI는 9일이 휴장이나 개장했을 경우 1%대 상승 출발 예상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비농업 고용자수 급증

미국 9월 비농업 고용자수는 지난달 발표된 22.7만 건이나 예상했던 16만 건을 크게 상회한 33.6만 건을 기록. 실업률은 예상했던 3.7%보다 높고 지난달과 같은 3.8%를 기록.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0.2% 상승해 지난달과 같았으나, 예상했던 0.3%를 하회. 전년 대비로는 4.3%에서 4.2%로 둔화. 주간 노동 시간은 34.4시간을 유지

미국 비농업 고용자수

(천건)	9월 (yoy)	7월 (mom)	8월 (mom)	9월 (mom)	9월-8월
전체 비농업 고용자수	350	236	227	336	109
전체 민간 고용	344	145	177	263	86
제품생산	44	12	47	29	-18
광업	2	2	0	1	1
건설	16	12	36	11	-25
제조업	26	-2	11	17	6
내구재	14	12	13	13	0
자동차 및 부품	4.3	2.6	-2.6	8.9	12
비내구재	12	-14	-2	4	6
개인 서비스	300	133	130	234	104
도매 무역	8.3	15.4	0	11.7	12
소매업	-11.1	12.6	0.4	19.7	19
운송, 창고	9.7	-6.8	-18.9	8.6	28
유틸리티	0.1	-1.5	2.4	4.8	2
IT	3	-19	-21	-5	16
금융	2	15	2	3	1
전문 및 비즈니스	48	-29	11	21	10
교육, 의료서비스	80	104	97	70	-27
건강관리, 사회지원	71.7	102.5	94.1	65.9	-28
레저 및 접객업	139	38	44	96	52
기타 서비스	21	4	14	4	-10
정부	6	91	50	73	23

자료: 미 노동통계국,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미국 국채 금리, 고용지표로 급등 후 상승폭 축소

국제유가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 특히 달러화가 강세에서 되돌림이 유입되며 약세로 전환하는 등 금융시장 변화도 상승에 영향. 다만, 러시아가 디젤 수출 금지를 폐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점은 상승을 제한. 미국 천연가스는 공급 감소와 수출 증가 소식에 힘입어 5% 넘게 상승. 유럽 천연가스는 호주 세브론 시설의 파업 재개 계획이 보도되자 5%대 상승

달러화는 미국 비농업 고용자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일부 착시 현상이 있었다는 점과 7월 이후 지속적인 강세를 유지해왔던 점을 감안 일부 되돌림이 유입되며 약세로 전환. 엔화는 일본 재무상의 구두개입이 있었지만, 영향이 제한된 가운데 달러 대비 약세. 특히 일본 수입업체들의 달러 매입에 따른 수급적인 영향도 컸음. 유로화는 독일 제조업 수주가 예상보다 양호하자 달러 대비 강세.

국채금리는 비농업 고용자수 급증으로 발표 직후 한 때 급등하기도 했음. 그렇지만,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둔화된 모습이고, 여기에 고용자수에는 일부 착시현상이 있었다는 점이 부각되자 상승폭이 축소. 특히 채권에 대한 과매도(금리 상승) 이슈가 부각되는 등 수급적인 요인도 금리 상승폭 축소 요인 중 하나. 이는 달러화의 약세 전환과 같은 모습

금은 국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에 힘입어 상승. 구리 및 비철금속은 미국 비농업 고용자수 급증에도 일부 착시현상이 있었다는 점이 부각되자 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되는데 힘입어 상승. 더불어 섯커버 물량 유입과 중국 투자자들의 매수 기대 등도 상승 요인. 곡물은 미국 수확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하락.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은 휴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82.79	+0.58	-8.81	Dollar Index	106.101	-0.22	-0.07
브렌트유	84.58	+0.50	-8.36	EUR/USD	1.0586	+0.34	+0.12
천연가스	3.34	+5.43	+13.96	USD/JPY	149.32	+0.55	-0.03
금	1,845.20	+0.73	-1.12	GBP/USD	1.2237	+0.37	+0.31
은	21.72	+3.35	-3.24	USD/CHF	0.9098	-0.27	-0.60
알루미늄	2,239.50	+0.34	-4.58	AUD/USD	0.6386	+0.25	-0.76
전기동	8,046.00	+1.86	-2.71	USD/CAD	1.3661	-0.32	+0.62
아연	2,509.00	+1.31	-5.30	USD/RUB	100.8995	+0.84	+3.43
옥수수	492.00	-1.11	+3.20	USD/BRL	5.1460	-0.43	+2.22
밀	568.25	-1.73	+4.94	USD/CNH	7.3094	+0.04	+0.23
대두	1,266.00	-1.15	-0.71	USD/KRW	1,349.90	-0.04	+1.00
커피	146.05	+0.45	-0.07	USD/KRW NDF1M	1,342.56	-0.14	-0.61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801	+8.24	+22.98	스페인	4.007	+0.60	+7.40
한국	4.244	-9.10	+23.20	포르투갈	3.653	+0.50	+5.00
일본	0.805	-0.70	+4.00	그리스	4.409	+5.50	+5.30
독일	2.884	+0.60	+4.50	이탈리아	4.912	+2.20	+13.0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미디어콘텐츠본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